



연암서당골
이야기책

연암서당골 겨울이야기

나는 눈이 좋다. 하얗고 시원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을에는 눈이 조금 오지만 그래도 나는 눈이 좋다. 아주 가끔 눈이 펄펄 오는 날, 우리 마을을 하얗게, 썰매 타는 나를 시원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방학이 오면 눈이 펄펄 내릴 때가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조금 추워져서는 눈이 펄펄 오지 않는다. 우리 동네는 추워지고 방학까지 와야 눈이 펄펄 올 준비가 끝난다. 방학이 오면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하고 일기를 쓰고 뉴스를 보는 아빠 옆에서 날씨 뉴스를 본다. 우리 동네에 눈사람 그림이 그려져있는 날은 잘 없다. 왜 겨울인데 우리 동네에는 내일도 햇님 그림이 그려져있는지 잘 모르겠다.

“아빠 있잖아, 왜 여기는 눈이 조금 오는데? 티비에 보면 저런 데는 눈이 많이 오는데. 저기 눈사람 그림 많잖아.”

“여기는 대구 아이가. 우리는 대구 산다 아이가. 대구에는 원래부터 눈이 잘 안 와.”

“왜? 왜 대구에는 눈이 잘 안 오는데? 근데 왜 우리는 대구 사는데?”

“하하하. 그런 말이 어딴노. 왜 대구에 살기는. 아빠도 여기 살고 엄마도 여기 사는데 우리 미진이도 여 대구 살아야지. 니 뭐 엄마 아빠 떨어져서 저 눈 오는 데 가서 혼자 살래? 하하.”

“아니, 눈 좀 왔으면 좋겠으니까 그러지. 왜 눈이 안 오는데? 대구에는?”

“응. 그거는 그래... 음... 그거는 큰 산이 있어. 대구를 꼭 안고 있거든. 이렇게. 그라이 눈이 내리면 자꾸 다 녹는다 아이가.”

아빠가 나를 이렇게 꼭 안아주면 나도 더워지는데 큰 산이 대구를 안고 있으면 대구도 더워지겠네. 큰 산이 대구를 맨날 꼭 안고 있으면 겨울에 눈이 와도 눈이 다 녹아버리겠네. 아빠 말이 맞다. 그래서 대구에는, 큰 산이 대구를 꼭 안고 있어서 눈이 잘 안내리나보다. 그래도 내일은 눈이 펄펄 왔으면 좋겠다. 방학도 왔고

겨울도 왔으니까, 눈이 펄펄 왔으면 좋겠다.

“미진아, 미진아. 눈 온다. 니 좋아하는 눈 온다. 으시 많이 온다. 얼른 눈 떠봐라.”

눈이 온다. 조금 말고, 아주 많이. 펄펄. 아직 자는 시간이라 바깥이 잘 보이지 않지만, 비가 오는 소리보다는 작은 하지만 분명히 눈이 펄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창밖에 귀를 대고 잠깐 숨을 참으면 들리는 눈이 많이 오는 소리.

“미진아, 얼른 조용히 옷 입어라. 장갑이랑 목도리 챙기고. 조용히 나가자. 아빠 안 깨구로”

“응, 엄마. 근데 엄마, 내 썰매 어디 있지?”

“꺼내놔다. 얼른 나온나. 조용하게.”

내가 더 어릴 때 엄마가 부엌에서 쓰던 빨간 다라이는 내가 크면서 내 썰매가 되었다. 눈이 펄펄 오는 날이면 감감한 새벽, 엄마와 나는 따뜻하거나 달콤한 간식을 썰매 안에 담아 살금살금 집을 나온다. 자고있는 아빠는 모르게. 나만큼 펄펄 눈이 오길 기다렸던 동네 친구들도 이웃집 이준마, 아저씨도 슈퍼 할아버지도 모두 우리 마을 꼭대기로 모인다.

“미진이 엄마. 와 이제 오노. 피떡 나오지. 여 커피 한잔해라. 미진이 왔다.”

“올해는 눈이 좀 일찍 오네.”

“뭐 일찍이고, 작년인가 재작년 기억 안나나. 그때 아들 방학도 안 했는데 눈과가 썰매 탄다고 학교 안간다 카고 안그랬나.”



“아 그랬네. 하하. 맞다. 아들 다 뭐 다라이들고 올라간다고 했었다. 하하. 벌써 또 겨울 왔네.”

“아들만 신났지 뭐. 우리도 몸 좀 녹이고 펄떡 눈 치우자. 지금 후딱 치워놔야 아침에 안 미끄럽지. 내 고무 마도 좀 찌웠다. 자.”

엄마는 눈이 오면 썰매보다 아줌마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더 즐거운가보다. 처음 썰매를 탄 건 내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인데, 멈추는 게 어려워서 엉덩방아도 많이 찢고 눈 위에 구르기도 했다. 지금도 썰매를 멈추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엉덩방아만 찢고 멈춘다. 고무 다라이를 끌고 마을 꼭대기에 올라오면 우리 마을이, 옆 마을이 다 보인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나, 미진이.”

눈이 오는 날 우리 동네 꼭대기로 썰매를 끌고 올라가면 슈퍼 할아버지가 빗자루를 들고 있다.

“너거는 좋겠네. 옛날에는 여기로 공부하러 서당 다니는 길이었다 아이가. 세월 좋아져서 너거는 여기서 다 라이타고 신나게 노네. 허허.”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서당 다녔어요?”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서당 다녔고 나도 서당은 안 댕겼지. 저 멀리 칠성 국민학교 다녔다 아이가. 걸어서. 그때는 전쟁통이라 뭐 학교라 칼 수 있나 뭐. 대충 천막쳐놓고. 근데 옛날에는 이 길로 서당 다녔다 카더라. 책보 들고.”

“저도 서당 다니고 싶어요. 그럼 학교도 안 가도 되고”

“서당도 학교 아이가. 땡 학교 택이지. 학교에 안 가면 되나. 허허.”

“저는 학교 안 가고 맨날맨날 눈이 펄펄 와서 썰매만 하루종일 타고 싶어요. 썰매 타다가 힘들면 서당 가고.”

“허허. 맨날 그래 눈이 오나. 요즘은 별로 춥지도 않해서. 우리 어릴 때는 저 신천, 저가 겨울 되면 퐁퐁 얼어. 그대가 그때 우리는 다라이도 없고 진짜 나무 썰매, 요만하이 해가. 우리가 그거 다 만들어가 거 나무 밑에 날 달면 고급이고 그것도 없으면 철사 이래 달아가.”

“저기 신천이요? 신천에서 썰매를 탔어요?”

“그래. 그랬다카이. 팡팡 얼어서. 그라든 나무 끝에 못 박아가 기다란 쇠꼬챙이로 해가 하루 종일 썰매 탔다 카이. 우리는 마 이런 고무 다라이도 없었다카이.”

“와, 할아버지. 저도 신천에서 썰매 타고 싶어요.”

“뭘 요즘은 신천이 어나. 눈도 잘 안 온다 아이가.”

“우리 아빠가 큰 산이 대구를 안아줘서 너무 따뜻해서 눈이 펄펄 안 온다고 했는데. 그럼 그게 이 산이에요?”

“아이지. 이거는 연암산이지. 연암산 아이가. 우리 때는 여 친지 놀이터였는데. 여름에는 신천에서 수영도 하고 저 다리위에 바위에서 다이빙도 하고, 이 동네 아들 수영 참 잘했어. 하하. 고마 마카다 옛날 이야기다. 미진이 니도 이제 썰매 타러 가라. 또 보자이.”

신나게 썰매를 타고 보니 벌써 아침이 와버렸다. 엄마랑 빨간

다라이 썰매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제 일어나는

아빠는 눈이 오는 지도 모르는 잠꾸러기.

“어디 갔다 오노. 둘이 그래 손 붙잡고.”

“미진이랑 몰래 놀러 갔다왔다 아이가.”

“뭘 어데 갔다왔는데. 미진아. 어디 좋은데 갔다왔노.”

“몰라. 아빠도 다음에는 같이 데려갈게. 지금은 비밀.”



산격골목시장





늘 그래왔던 것처럼 슈퍼의 열린 문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주인장의 이름을 불렀다. 슈퍼의 주인장은 서당골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주변 지인이 운영하던 슈퍼를 이어받은 후 오랫동안 산적골목시장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슈퍼를 운영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가게들과 인근 주민들을 잘 알게 된다. 더불어 주인장은 서당골에서 태어나 이곳이 고향이니 다른 누구보다 잘 안다 할 수 있다. 주인장은 슈퍼를 운영하기 전 칠성시장에서 신발가게를 했지만 신발 한 개에 다양한 치수를 준비해야 함에 재고관리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슈퍼의 문은 이른 새벽에 열려 자정이 가까워져야 닫힌다. 시장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는 등대 같은 곳이 ㅇㅇ슈퍼이다. 첫 손님으로 서당골 인근에 사는 김할머니가 가게 문턱을 넘었다. 김할머니가 이른 새벽 슈퍼에 오는 이유는 목욕탕에서 나눠마실 요구르트 한 줄을 사기 위해서다. 이른 새벽부터 문을 여는 성북목욕탕은 늦게 가면 사람이 많아 목욕하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고 한다. 마을 공동우물과 신천에서 목욕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뜨거운 물에 마음껏 몸을 담그며 주민들과 환담을 할 수 있는 목욕탕은 시장뿐만 아니라 서당골의 사랑방 같은 곳이다. 주인장은 물건을 계산하며 너무 이른 새벽에 가는 게 아니냐 묻자 할머니는 3공단이 들어오고 나서 젊은 새댁들이 많아져 일요일이나 손님이 많은 시간은 옷장이 부족해 바구니에 옷을 보관해야 한다며 손을 저었다. 한번은 이 옷이 내 옷인지 아닌지 바뀐 입고서 나가는 사람도 있다며 껄껄 웃었다. 두 번째 손님은 시장에 사람들이 서서히 밀려오는 출근 시간에 찾아왔다. 경북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허씨는 도청의 이전과 함께 서당골에 터를 잡았다. 매일 시장을 통과해 출퇴근하고 있어 담배가 떨어질 때마다 슈퍼에 온다. 이날은 허씨가 초코파이 2개를 갖고 오는 것을 보고는 주인장은 능청스레 누구꺼냐 물었다. 그러자 허씨는 저도 장가 가야 하지 않겠냐며 말장게 웃었고 같은 공무원 직원과 퇴근 후 신천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 넌지시 말

했다. 주인장은 그런 젊은 허씨에게 국수는 언제 먹냐며 잘해보라는 듯 농담을 던졌다. 세 번째 손님은 두 명이 함께였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시장의 골목은 장을 보러온 사람들로 가득하고, 어디서 왔는지 모를 노점과 리어카가 속속 슈퍼 앞을 채웠다. 3공단과 경북도청이 생기면서 서당골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 들었고, 셋방이 대거 생겨났다. 이때 한 집에 방마다 세를 놓아서 많게는 열 가구가 살기도 했는데 언뜻 보면 모녀 같은 두 손님은 집주인 아주머니와 셋방 새댁이었다. 둘은 두 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에서 미원을 찾았는데, 미역국에 미원을 넣으면 더 맛있다고 하는 새댁과 미원이 아직 낯선 아주머니는 서로 아웅다웅하다 대뜸 주인장에게 요즘 이게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게 맞냐며 물었다. 주인장은 많이들 사 간다며 뭐 그렇게 장을 많이 보았느냐 되묻자 아랫방 새댁이 아이를 낳고 왔다고, 이럴 때 일수록 잘 먹어야 한다며, 그런데 다 같이 밥 한끼 만들어 먹으려는데 뭐가 이리 어려운지, 입맛엔 맞을지, 시장에 사람이 왜이리 많아졌는지, 미원이 산모에게 안 좋은 건 아닌지 혼잣말처럼 툭툭거렸고 곧 새댁의 성화에 미원이 든 장바구니를 무겁게 들고 시장 인파 사이로 사라졌다. 네 번째 손님은 시장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휩쓸고 지나간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잔업을 마치고 온 3공단의 박씨였다. 늦은 밤 출출한지 삼양라면과 백구소주를 집어들었고, 잔돈을 건네는 주인장에게 아직 자개상이 남아있느냐 물었는데 서당골에는 연암산과 신천으로부터 온 깨끗한 물이 풍부해 양조장만 3곳이 있었고, 그 중 백구소주가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병마개 안에 쓰인 홍보문구인 '전신만신 백구소주' 단어 8개를 완성하면 자개상을 주는 행사를 했는데, 이 자개상을 받으려고 소주를 사는 사람이 많았다. 주인장은 자개상은 아직 있으며, '주'가 적인 병마개가 없어 못 바꾸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박씨는 자기는 '주'가 2개라고 내일 다시 올 테니 다른 글자로 바꿔줄 사람 있으면 알려달라며 주인장도 빨리 들어가 쉬라고 말했다. 그렇게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슈퍼의 불이 꺼졌다.

다시 꺼내본 연암 서당골 이야기



지금 여 도로가 냇가, 도랑이었어. 연암로로 해서 내려가는 길, 저 밑에는 과수원 있었고. 옛날에 국민학교는 어디로 다녔나하면 달성국민학교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거기 다녔어. 칠성국민학교, 거기까지 걸어다녔지. 그때는 교통편이 뭐 없었잖아요. 대중교통이라는게 뭐 있나. 옛날에는 자전거가 부자인거고, 자동차는 꿈도 못꾸고, 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있다가 6.25사변이 일어나서 칠성국민학교가 공군이 주둔했어요. 그래 학교가 없어서.

노는거는 학교 갔다오면 땀감 구하러 가고 지금은 산에 가면 소나무 많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소나무 솔가지가 고급 땀감이었고, 장작. 장날되면 그거 팔고 그랬어요. 특별히 뭐 놀이라 하는게 있나, 팽이치고 제기차고 여자들은 고무줄하고, 겨울되면 연날리고, 그랬지 뭐.

운동장이 신천이지 뭐. 놀이터, 여기서 놀고 목욕하고, 빨래도 하고 세숫물도 하고, 여름되면 여 수영 많이 했고, 지금 도청교 밑에가 다이빙 장소였거든.

우리동네 비가 오면 꼭대기에 애들하고 다 나와요. 산에서 비가 쭉 내려오면 신발로 전부 신발로 다 막아요. 그렇게 물을 막아놓다가 딱 튕기면 물이 내려가요. 높으니까. 그러고 노는거야. 하하하. 또 수도사업소에 가면 잔디가 잘 되어있어요. 잔디에서도 놀고.

눈이 올 때를 생각해서 우리는 아예 썰매를 만들어놔어요. 길게 줄을 만들어서, 막으면 안되니까. 한줄로 째고 내려가요. 지금도 놀아. 눈이오면 필히 다 모여요. 어디 같이 놀러갈필요가 없다 진짜.

눈이 오면 새벽 네시 반만 되면 먹을거, 전부 커피 들고 다 나와요. 안나오면 욕해요. 언니 왜 눈왔는데 안 나왔냐고.

거 대구 눈 얼마나 온다고?

아 그래도 꼭대기 거는 치워야되잖아. 다들, 애들은 다라이 갖고나와서 눈썰매 타고 어른들은 그동안에 눈 치우고.

거 아들 내려가면 억수로 경사지던데 안쳐박히나?

아들 다 브레이크 다 잡아요. 포장 잘해봐가 뭐. 타기 좋지.

우리 어릴때는 신천 여가, 겨울되면 얼었거든. 그때는 우리는 진짜 썰매, 요래 해가. 나무로.

날 달아가.

날 달른 고급이고, 못달면 철사, 철사로 이래가. 썰매 그거는 나무 끝에다가 못 박아가. 그래도 조금 여유있는 사람은 기다란 쇠꼬챙이 달아가 타고.

옛날에는 인심도 좋았다. 누구집에 제사면 대문밖에 화투치고 놀아. 제삿밥 얻어먹는다카미. 하하. 도로가에서. 대문 밖에 불켜놔놓고. 대문밖에 퍼 놓고. 그람 제사 지내고나면 음식 나눠먹고 놀다가고 그랬다카이. 이동네는 거의 다 오래 산 사람들이지. 서로서로 다 아니까, 가끔은 골목골목에 앉아서 찌짐을 부쳐요. 전 부 다 나와요. 누구야 나온나, 밀가루 있나, 참기름 있나. 해서 같이 밥 비벼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한 오 년전만 해도 그렇게 잘 모여지냈어요.

썰매도 옛날에는, 지금 여기 자동차 다니는 길이, 옛날에는 자동차 없었잖아. 제방이잖아. 신천이랑 고 사이에 자동차 다니는길. 옛날에는 제방입니다. 뚝방길. 여름되면 뚝방에 자리피고 앉아서 놀고 더우면 냇가 가서 목욕하고 올라오고. 물도 막 넘치고. 그랬다카이. 지금 동로 이길이 전부 뚝방입니다. 뚝방이 도로가 돼있는거거든.

목공소는 3년 됐나. 요즘은 사람이 조금 목공소가 알려지고 사람들이 오고 해서 좋지요. 원래는 산격 1동에서 도시 재활사업으로 구성이 됐는데 단계적으로는 개방해서 협동조합 구성되어있으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개방해서 타지사람들도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은 교육은 안하지만 조합원들이 나름대로 실력향상을 위해 자기 제품도 만들고 교수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직접 우리가 만들고싶은거 만들고 있어요. 스피커도 만들었고 나무 도마는 우리 며느리도 욱시 좋아했고. 지금 전자렌지 다이 만드는사람도 있고. 간단한 가구, 내가 필요한건 다 만들어요.

여기는 처음에 동네가 3공단이 원체 사람이 많을 때 서당골 여기가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세를 많이 살았어요. 여기서 출근을 했지. 그러다보니까 서당골 사람들이 내려오다보면 골목시장 그길이 아침 출근길에는 뽐뽐하게 내려와있거든. 판테로 다닐 길이 없는가라. 그길로 거진 다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골목에 가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섰지. 내 처음 가게했을때만 해도 그렇게 시장같은 규모가 아니었어.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서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됐지. 신발가게, 육숫간, 옷가게, 떡집, 미장원. 뭐 이래서 형성되니까 사람이 원체 많이 다니다보니까 난전도 생기고.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장사가 잘되고 그럼 사람이 더 붙는가라. 그러다보이 시장도 좀 커지고 한때는 회원이 130명이 넘었을거라. 번영회를 조직을 했는거라. 시장에 자율 경비도 서고 기금마련한다카미 보름에는 풍물도 치고 같이 놀러도 가고. 그러다가 차츰차츰 대형마트 들어서고. 사람이 줄어들고. 장사가 안되니까 하나씩 다 치우다 보니까 지금처럼 남았지. 한창 잘될적에는 정말 잘됐어요. 무태 사람들도 여기서 장봐가 가고. 잘될 때 그때는 양 끝에 슈퍼도 하나씩 있었고. 그때는 주말 평일 할거없이 매일 잘 됐어요. 손님은 주로 동네 서당골에 사람들이고, 그당시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았지. 이동네에는 그당시에 집만 좀 넓으면 방을 여러개를 해서 세를 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많이 살았지. 갑자기 비가오기라도 하면 아침에 우산쓰고 출근하는거같으면 골목으로 시장가는게 비좁아서 잘 다니지도 못했어. 그정도로 사람이 많았어. 출퇴근 시간에는, 비라도 오면 그랬어. 뽐뽐하게 지나다녔으니까.

지금 대상초등학교 자리에 백구소주가 잇었는데, 그때만해도 백구소주하면 대구에서는 많이 알았지. 그런데 한참전에 없어졌고, 그게 유명했을때에는 ‘전신만시 백구소주’라고 병뚜껑에 글자가 하나씩 붙었는데 그거 모아오면 자개상주고 그랬어. 밥상. 소주회사에서 그런 이벤트를 했어. ‘주’자가 잘 안나왔는데 그래서 ‘주’자만 갖고와도 자개상을 줬어. 자개상 많이 타갔을거라요. 우리 어릴적에 우리도 받았는거 같은데. 하하.

이동네는 뭐 신천에 수영하고 많이 놀았지. 용대바위. 거서 다이빙도 하고. 신천에서 고기도 잡고. 겨울되면 신천에 물이 쾅쾅 열어서 스케이트 타고. 홍수나면 거기 돼지도 떼내려오고 그랬어. 사라호 태풍. 그때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지금 파출소 지나서까지 지금 골목시장 입구, 옛날에 목욕탕 했던 자리. 물이 거기까지 올라왔다카이.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동네가 매자미잖아. 동네 이름을 미지미했거든. 매잔. 매화 매자에 뽐나무 잠자 써서. 매잠골 축제도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이 하는 축제라. 매년 4월-5월달에. 뽐나무도 많았어 옛날에는. 누에도 많이 키우고. 우리도 어릴 때 집에서 다 누에 키웠어. 요 밑에도 뽐나무 밭이 많았다니까. 기다랗게 대나무를 자른 밭이 있어, 선반이 쪽쪽. 거기에 누에 잎 따서 뿌려놓으면 누에가 그걸 갹아먹고 크는거야. 그래서 실 뽑고. 집집마다 많이 키웠지. 옛날에는.

그리고 이 동네에 감나무도 많았어. 감꽃 주워먹으러 다니고 했지. 집집마다 감나무 있었어. 없는 집이 없었지싶다.

아름다운 동네 서당골

[등장인물]

미진

아빠

엄마

리포터1

리포터2

만복

할매

허씨

아줌마1

아줌마2

박씨

이벤트

아줌마3

무대에는 상이 차려져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아 있다.

캐롤이 나오면서 미진이 나온다.(하수등장)

미 진: 겨울이데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겨울이 왔데이!

엄 마: 미진아. 얼른 와서 밥 무으라.

미 진: 아이참! 엄마! 겨울이 왔는데 아무느낌도 없나?

엄 마: 없는데

미 진: 엄마는 로봇이가? 뭘 감정이 없노.

엄 마: 감정 넣어가 함 씨게 마아 불래?

미 진: 미안. 용서해도.

엄 마: 너는 겨울이 그렇게 좋나?

미 진: 하모! 내는 벌써 기대가 된다. 눈이 오면 거리는 하얗게 변하고 공기는 시원해지겠제? 그러면 썰매도 타고 얼마나 좋노!

엄 마: 시끄럽다! 어서 밥이나 쳐무라!

아 빠: 와이리 시끄럽노.

엄 마: 아입니다. 식사하이소.

아 빠: 미진아.

미 진: 예?

아 빠: 다리몽댕이 뽀사뿌기 전에 조용히 밥 묵제이.

미 진: 알았습니더.

가족은 밥을 먹다 아버지가 리모콘을 들고 티비를 켜다.

리포터1이 나온다.(하수등장)

리포터1: 현재 서울은 폭설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은 꽁꽁 얼어붙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이동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빠: 에이.

아버지가 리모콘으로 채널을 돌린다.

리포터2: (스스로 눈을 뿌리면서) 여기는 강원입니다. 보다시피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눈썰매를 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리모콘을 끈다.

아 빠: 에이! 전신에 눈눈눈! 지겨버 죽겠다.

미 진: 아빠!

아 빠: 와!

미 진: 다른데는 눈이 저래 마이 오는데 여기는 왜 햇님만 보이노?

아 빠: 대구 아이가.

미 진: 대구?

엄 마: 대구는 원래부터 눈이 잘 안 온다.

미 진: 와 대구에는 눈이 잘 안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와 대구 사는데?

아 빠: 하하하 그런 말이 어딴노! 와 대구에 살기는...아빠도 여기 살고 엄마도 여기 산다

아이가! 우리 미진이도 대구 살아야지.

와! 눈 오는데 가가 혼자 살고 싶나?

미 진: 아니...눈이 하도 안오니까 그러지. 근데 대구는 와 눈이 안오는데?

아이다! 산격동만 안오는건가?

엄 마: 와! 여 서당골 마을만 안온다카지?

미 진: 그란가? 아인데... 분명 다른데도 눈이 안오던데...

아빠 와 대구만 눈이 안오는건데?

아 빠: 그거는...어! 큰 산이 있다. 근데 그기 대구를 꼬옥 안고 있는기라. 이렇게.

(엄마를 안는다.) 그라이 눈이 아무리 내려도 따뜻해가 다 녹는기다.

미 진: 아빠! 내 어리다고 속이는거 아이제?

아 빠: 하모! 아빠가 어데 거짓말을 하노!

미 진: 와! 저번에 산타 온다꼬 착한일 마이 해야한다꼬 내보고 그래 심부름 시키더이

몰래 선물 놓다가 내한테 걸린거 기억 안나나!

아 빠: 그거는...돼따! 치아뿌라! 아빠가 말을 하면 믿어야지. 니! 아 교육을 우째시키는거고!

엄 마: 와 옆집에서 쳐맞고 내한테 씨부렁대는교!

아 빠: 이기이기! 됐다. 내 사마 다 필요 없다.

아빠. 퇴장한다.(상수퇴장)

엄마는 상을 치운다.

엄 마: 가시나야 적당히 해야지. 아빠 화났다 아이가!

미 진: 내가 뭘 했다고 그러는데?

엄 마: 됐다! 언능 드가서 방학숙제나 해라!

미 진: 알았다. (하수쪽으로 가서 옆드리며 숙제준비한다.)

엄 마: 니 일기 쓰고 자는 거 알제?

미 진: 알았다고!

엄 마: 가시네 성질 머리 하고는...지 애비를 쏙 빼닮았네.

미진. 책을 펼치고 바로 잔다.

엄마. 상을 치우고 가다 창문밖에 눈이 오는 걸 본다.

엄 마: 어! 눈이 오네? 미진아. 미진아. 눈 온다 니가 그래 좋아하는 눈 온다꼬!

밖에 옥스로 마이 오는데...

(미진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그렇지. 이놈에 가시네는 우째 책만 펴면 자노.

(책을 보며) 눈이 온다. 쪼매 말고, 옥수로 많이.

아직 자는 시간이라 바깥이 잘 보이지 않지만 비가 오는 소리보다는 작은...

하지만 분명이 눈이 펄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창밖에 귀를 대고 잠깐 숨을 참으면 들리는 눈이 많이 오는 소리...

(미진을 보고) 이기 눈이 보고 싶어가 미친나. 안되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이렇게 망칠 수는 없는기라.

(미진이를 흔들며) 미진아. 일라봐라. 미진아...

미 진: 아...와 깨우는데...

엄 마: 밖에 니 좋아하는 눈 온데이.

미 진: (큰소리로) 진짜!!

엄 마: 췌! 썰매타고 싶으면 조용히 옷 입어레이. 장갑이랑 목도리 챙기고, 이빠 깨면 알제?

미 진: 응, 엄마. 근데 썰매 어디 있노?

엄 마: 꺼내 났으니까 걱정 말고 얼른 나가자. 조용하게.

미 진: 조용하게.

엄마,미진 퇴장한다.

김만복 할아버지가 슈퍼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

만 복: (관객을 보며) 안녕하십니까! 김 만복입니다. 요새 사는건 좀 어떻습니까?

좀 각박하지예? 그래도 여기 서당골은 좀 나은 겁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보면 어릴때가 참 그립습니다.

지는 서당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쪽욱 있었으이 유지아입니까 유지. 하하하

처음에는 칠성시장에서 신발가게 했는데 고마 말아무 습니다.

그래도 운 좋게 슈퍼라도 하고 있으이 다행 아입니까.

지는 이 슈퍼를 등대라 부릅니다. 이 산격골목시장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닫으니까요. 하이고...근데 오늘은 도통 손님이 안보이노,

날이 추버가 그렇나...

김할머니 등장한다.

만 복: 할매! 벌써 나오는데!

할 매: 어제 잠을 잘못 잤던지 허리가 지끈지끈하네. 그래도 다행이기가. 우리 성북목욕탕은

새벽부터 문을 열어주이. 어여 요쿠르트나 한 줄 내 봐라.

만 복: (품에서 요구르트 한줄을 꺼내 건네며) 안그래도 준비해 뒀습니다.

오늘은 애기꺼리 마이 준비 했습니까!

할 매: 말도마라. 어제 하도 지끼가 이제 다 떨어지빠따. 옛날엔 마을 공동우물이나 신천에서 목간하면

동네 아줌씨들 다 모이가 한달을 지끼도 지치지않던데... 내도 이제 나이를 묵은기라...

만 복: 아참! 3공단 들어오고 젊은 새댁들이 몰 리가 목욕탕 미어터진단던데 맞습니까?

할 매: 말도마라. 내야 일찍 가서 다행이지. 나중에 보이 옷장도 다 차가 바구니에 담더라.

한번은 워낙 사람땀시로 정신이 없으이 이기 내옷인지 남에 옷인지 분간도 모하고 나가다가

걸리뿌따 아이가. 대관 싸우고 난리났다!

만 복: 아이고...진짜 씨름 했겠네요

할 매: 그러이까! 하이고 내 이럴 때가 아이다 얼른 가자 자리 잡아야지.

내 간데이.

만 복: 예. 드가이소!

만복은 청소를 하고 있다.

허씨가 들어온다.

허 씨: 안녕하십니까!

만 복: 어! 그래. 이제 출근하나?

허 씨: 예.

만 복: 도청은 잘 돌아가고 있나? 그래도 명색이 경북도청 아이가! 이전한다꼬 고생이 마을깁데...

허 씨: 쾌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빠릿빠릿한거 아시지 않습니까!

만 복: 그래. 잘 됐다 생각해라. 덕분에 공기좋은 서당골에 안 들어왔다.

허 씨: 맞습니다. 그라고 동네분들도 참 정겹고 좋습니다.

만 복: 그래. 그러면 되는기라. 어! 담배 살라꼬 왔제?

허 씨: 예.

만 복: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며) 내가 다 준비 해 뒀지. 근데 그 초코파이는 뭐꼬?

두깡거 보이...니 아가씨 생 나?

허 씨: 예. 지도 장가 가야지예.

만 복: 어떤 처잔데?

허 씨: 같이 일하는 공무원인데 얼마전에 사귀게 되었습니다.

만 복 : 보기 좋데이. 아가씨 단디 잡아레이. 요새는 세상이 변해가 단디 안잡으면
막~ 날아가뻘다 카더라.

허 씨 : 하하하 걱정마이스. 퇴근하고 신천에서 매일 데이트 합니다.

만 복 : 허허허 그래. 요새 안그래도 국수가 땡기더이...조만간 먹겠네. 하하하

허 씨 : (쓱스러워하며) 예.

만 복 : 어여 가보거라. 나라 녹 먹는 사람이 늦으면 안되제.

허 씨 : 알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만 복 : 국수 빨리 먹제이.

허 씨 : 예.

허씨 퇴장한다.

만복 다시 청소를 한다.

만 복 : 하이고...3공단도 생기고 경북도청도 생기더이 거리에 사람이 북적북적 하네.

아주머니 두분이 등장한다.

아줌 1 : 아니 미원을 넣어야 한다니까요.

아줌 2 : 굳이 넣을 필요가 있나? 안그래도 잘만 먹던데...

아줌 1 : 요새는 사람들 입맛이 변해가꼬 미원 안넣어면 안먹습니다.

아줌 2 : 그래? (만복을 보며) 사장님. 요새 미원이 그렇게 잘 팔립니까?

만 복 : (당황하며) 뭐! 많이들 사가지예.

아줌 1 : 보이소! 다들 사간다 안잡니까.

아줌 2 : 뭐...그렇긴 하네...근데 아 낳은 사람한테 미원 먹이도 되나?

만 복 : 뭔일인데 그러는겨?

아줌 1 : 여는 주인집 아줌마고 지는 윗집 세들어 사는 사람인데...아랫집 세 사는 새댁이

오늘 아를 낳았다 아인겨? 그래가 다같이 모이가 미역국 좀 먹일라 카는데

아줌마가 자꾸 미역국에 미원을 안 넣을라카이 답답 안한겨! 우째 미역국에

미원을 안넣고 먹을 수가 있습니까. 내 말이 틀린겨?

만 복 : 내는 미원 안넣는게 좋던데...

아줌 1 : 뭐라꼬예!!!

만 복 : 아니...미원이 최고라꼬. 미원 안들어가면 거기 음식이가! 미원이 최고다 아인겨!

아줌 1 : 봤지예?

아줌 2 : 알았다. 저기 미원 하나만 주이소.

만 복 : 예. (미원을 가져다주며) 여 있습니다.

아줌 1 : 고맙습니다.

아줌 2 : (퇴장하면서) 쾌안을라나...

아줌 1 : 참말로 내 못 믿습니까. 미원은 무조건 넣어야 한다니까예.

아줌 2 : 그래도...임산부한테 괜찮겠나?

아줌 1 : 뭐가 임산부입니까! 애는 벌써 낳았는데...미원이 들어가야 아래층 새댁도

몸이 불끈불끈 기운이 난다 아입니까. 미원이 최곱니다. 내는 미원 없이 못합니다.

아줌 2 : 알았다 고마해라.

아줌1,2 퇴장한다.

만 복 : 참말로 미원 좋아하는가보네. 미원에서 상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이가?

박씨가 등장한다.

만 복 : 어! 박씨 오는가!

박 씨 : 예. 삼양라면 하나랑 백구소주 하나 주이소.

만 복 : (라면이랑 소주를 주며)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네.

박 씨 : 노가다야 다 그렇지예. 오늘은 잔업이 좀 길어져서 그렇게 쉽니다.

아직 자개상 남아있습니까?

이벤트 등장한다.

이벤트 : 안녕하십니까! 서당골에는 연암산과 신천으로부터 온 깨끗한 물이 풍부해 양조장만

세곳이 있죠.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 뭐? 바로 백구 소주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백구 소주. 그동안 받기만 했던 백구 소주에서 드디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구 소주를 사시면 병마개 안에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 전신만신 백구소주! 이 여덟글자를 다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탐나는 고급 자개상을 드립니다.

이상 백구소주의 홍보팀장! 개백구 었습니다.

이벤트 퇴장한다.

만 복: 전신만신 백구소 까지는 나오는데 주가 잘 안나오는가보다.

허 씨: 지한테 두 개 있는데예?

만 복: 뭐라꼬?

허 씨: 그러면..내일 다시 올테니까 다른 글자로 바꿔줄 사람 있으면 알려주이소.

만 복: 알았다.

허 씨: 그럼 가보겠습니더. 날도 늦었는데 얼른 문 닫고 들어가 쉬이소.

만 복: 그래. 어여 들어가라.

허씨 퇴장한다.

만 복: 어! 눈이 오네.

만복 퇴장한다.

미진이랑 엄마가 등장한다.

미 진: 와~~ 눈이데이. 참말로 눈이 온데이..

엄 마: (웃으며) 미진아. 그래 좋나?

미 진: 응. 내는 눈이 욱수로 좋다. 엄마는?

엄 마: 내도 미진이가 좋아하는 눈이 욱수로 좋다.

갈 이: 하하하

만복과 아줌3이 나온다.

아줌 3: 미진이 엄마. 왔나?

엄 마: 오셨어요?

만 복: 벌써 나왔구마이.

미 진: 할아버지!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줌 3: 그래. 미진이 왔나?

만 복: 미진이 썰매타러 왔나?

미 진: 네!

아줌 3: 미진엄마 우린 저 가서 커피나 한잔 하자.

엄 마: 예. 미진아. 엄마 저기서 커피마시고 있을테니까 재밌게 놀아래이. 할아버지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미 진: 내가 아가?

엄 마: 그러면 니가 아지 어른이가?

만 복: 미진엄마. 걱정 말고 커피나 마시라. 미진아 우리 썰매 한번 탈까?

미 진: 네!!

만 복: 어디보자...여가 좋겠네.

미 진: 와~~여기서 보니까 우리 마을이 다 보이네요. 어! 저기 옆마을도 보이네.

만 복: 옛날에는 이 길이 공부하러 서당 다니는 길이었데이.

세월이 좋아져가 이제 미진이가 여서 다라이 타고 노네.

미 진: 할아버지도 서당 다녔어요?

만 복: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녔고 내는 안 당겼다. 근데 아버지 말로는 책보들고 이 길로 서당다녔다 캐워서 안기라.

미 진: 아... 할아버지. 지도 서당 다니고 싶어요. 그럼 학교도 안갈 거 아니예요!

만 복: 하하하 서당은 학교 아이가? 미진이 학교 가기 싫나?

미 진: 예. 지는 학교 안가고 맨날맨날 눈이 펑펑 와서 썰매만 탔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더.

만 복: 저기 보이나?

미 진: 저거요? 음...저거...신천 아니예요?

만 복: 그래. 할아버지가 어릴때는 신천에서 썰매를 탔데이.

미 진: 신천에서요?

만 복: 그래. 그때는 고무 다리이도 없어가 나무 끝에 못 박아가 기다란 쇠꼬챙이로 해가 하루종일 썰매를 탔데이.

미 진 : 지도 타보고 싶어요.

만 북 : 근데...요새는 눈이 안와가 신천이 얼지를 않네.

미 진 : 그거는요 우리 아빠가 얘기해줬는데 대구에는 아주 큰~~산이 있는데 그 산이 대구를 꼭 안으니까
너무 따뜻해가 눈이 평평 안온데요.
그럼...이 산이 그 산이에요?

만 북 : 아이다. 이거는 연암산이다. 혹시 아냐? 미진이가 착한 일 마이하면 하늘이 감동해가 대구를 안은
큰산이 이번 한번만 손을 딱 때줄지.

미 진 : 지는 오늘부터 착한일 마이 할겁니다.

만 북 : 허허 그래. 우리 나중에 꼭 신천에서 썰매 타제이.

미 진 : 예!

만 북 : 그럼 썰매타러 가볼까?

미 진 : 예!

모두 퇴장하고... 미진과 엄마는 손을 잡고 조용히 들어온다.

아 빠 : (등장하며) 어데 갔다 오노. 둘이 손 꼭 붙잡고.

엄 마 : 안갔는겨!

아 빠 : 도둑고양이 두 마리가 다라이 흠치가 도망가는데 잠이 오겠나!

엄 마 : 미진이랑 썰매타고 왔습니다.

아 빠 : 뭐? 어데 갔다 왔는데? 미진아. 어데 좋은데 갔다 왔노?

미 진 : 올라도 된다. 아빠도 다음에는 같이 텔꼬가줄께. 그카니까 지금은 비밀이다!!

아 빠 : 그래. 나중엔 아빠도 꼭 데꼬가도!

미 진 : 그래! 우리동네에 이래 좋은 곳이 있는지 몰랐데이. 기대해도 된다.

아 빠 : 그래. 인자 실컷 놀았으이 언능 드가가 자라.

미 진 : 예.

미진. 일기장을 쓰고 읽는다.

미 진 : 드디어 서당골에 눈이 평평 왔다. 나는 우리동네가 참 좋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
다들 좋으시다. 그리고 연암골에서 바라본 우리 동네는 너무 이뻐다.
나는 평생 이곳에서 살꺼다.

끝

발행일 2019년 10월

발행처 내마음은콩밭협동조합

주 소 대구 북구 대현로 3, 2층






전 화 053.959.0808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kongbatssc>

E-mail kkongbat@naver.com

디자인 내마음은콩밭협동조합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행복북구문화재단  내마음은 콩밭  영남서양로  영남서양로 협동조합  반디협동조합

협력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 출처 및 저자를 명시하는 한 자유로이 인용될 수 있으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복제를 금합니다.